

말로만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25면에서 계속

가 이렇게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지옥도 이 자리에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이 응축하고 불이 치밀면 그것은 화랑지옥이요, 그것을 다 놓아서 평안하게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하면 되나!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바로 주인공 당신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하고선 탁 놓았을 때, 방학했 했을 때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바로 자비스런 부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가면 참 아주 복잡하지 않고 좋아.' 하고 돈도 올 거고 가난도 없어질 겁니다. 화복해야 가난이 없어지는 거지 화복하지 않고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돈도 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데 알고 나쁜 데 알아야요. 그러니 돈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여러분은 한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주 개공을 맞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이 아니라면 없었을 테니까요. 이 차전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교하게! 차전이라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가면 점점 더할 거예요.

기독교에 십자가 붙인 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이 도리를 열심히 배워서 법사의 자격을 따 가지고 법전만 들면 어디 가서 법률 마크를 걸고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입니다.

여기 부산의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옛저께 개원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워서 법사 자격증을 쥐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우리 불법을 포교를 한다면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한 겁니다. 요번에 법전이 나오면 여기 부산에도 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구나 어디나 방방곡곡에 법률 마크를 걸어 놓고 이 마음 법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센터에 샘들이 나오게 해서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살행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그런 문제는 말로만 하거나 이론으로만 한다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실천으로 옮기고 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천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는 실천을 해 보고, 내 몸뚱이를 수천 번 던져 보고 수천 번 칼로 찢어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 보지 않고 책으로만 봐서 남의 말을 듣고 한탄만 천만의 말씀이! 지금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아주 거짓 없는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아도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단풍 들어 떨어질 텐데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을 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부처님 법에 누가 되는. 한테 떨어지는 말이요, 한마디 거짓을 안 한다면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한 마디 거짓을 하면 그것을 검주려고 백 마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뱃속에 수십억 마리가 다 알게 되지요? 음파를 통해서 벌써 법계에서 허공에서 다 알

고 다녀요. 휠체어! 내가 가만히 볼 땐 먹는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어느 식당에 한번 들어가니까요, 글썽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똬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큰 접시에다가 고기를 한 접시 야채 한 접시 또 아이스크림이 한 접시 또 닭 한 접시, 네 접시를, 허허, 글썽 혼자서 가져가기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여러 사람이 오니까 뷔페식으로 저렇게 갖다 놓고 떨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거기 구경하자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야채하고 먹는데요, 고 조그만 것도 배가 부른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글썽, 하하하,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러니 몸뚱이가 그렇게 안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사람들이 아주 한 등 올라선 게 뭐냐 하면 일본식으로 스시나 야채를 튀겨 놓는 거, 이런 걸로 아주 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나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거는 불법에 어긋난 게 아니냐?' 하고 얼마든지 항의하셔도 저는 그냥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큰스님 제가 이년까지 수없이, 설법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경험한 대로 말씀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료들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각자가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 태어나셨으니가 선생님이라 회두고 선생님이라 근본이라고요. 그것이 지수화풍의 근본이요, 지수화풍 속에 바

있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까. 당신 주인공에 나도 접해 있거든요. 이 세상 일체제를 만생 만법이 다 거기 있는데 틀 그래요. **질문자1(남)** 그러면 그냥 소금물에 타 가지고... **큰스님** 이따 이 스님한테 잘 들으세요.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할 분 없습니까?

질문자2(여)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갑자기.

큰스님 눈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면 좀 이익이 될지 모르니 내 주인공에다 '내 눈 밝게 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따가 이 스님한테, 눈으로 인해서 문제 있는 분은 이 스님 만나세요, 그 이치를 일러 드릴 테니까요.

질문자3(여) 스님, 제가 양 무릎 밑이 좀 안 좋거든요.

큰스님 지금 아픈 것으로 질문을 자꾸 하시는 데, 그런 질문은 조금 있다가 공양할 하시고 개인 별로다가 하시고요, 법에 대해서 질문할 분 있으면 하세요. 또 병으로 질문하려고요? (대중 웃음) 그것은 이따가 하세요.

질문자4(남) 쉬어라, 쉬어라 하시는데 어떻게 쉬라는 말씀입니까?

큰스님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해 드려요. 여러분, 카세트로 항상 노래도 듣고 뭐, 영어도 배우시고 그러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과거에 살던 카세트를 쫓아지고 나온 겁니다. 쫓아지고 나온 카세트에서 숲을 풀려서 나오는 대로, 각본대로 여러분은 연예인들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세트에서 나오는 데다가 지금 현실에 '아이고, 네가 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카세트에다 도로 맡겨 놓으면 바로 그 카세트에 앞서 감긴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맡겨 놓고 사는 것이 바로 방학하는 것이요, 쉬는 것이요, 놓으라는 것이요, 보임하는 것이요, 바로 참선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쯤 아세요.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칠까 합니다. 무슨 문제로 인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조금 있다가 공양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공양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저 산보 나온 것처럼 들고 나오셔서 그냥 잡숫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88년 7월 3일 부산지원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션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증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게 되지요. 그러니 내 몸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거짓말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거짓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 그 삶의 참보람을 느껴 보세요.

지난번에 미국 산호세에 가니까요, 거기서 이전 편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 밭에 있는 풀을 전부 끊어냈어요. 거기마다 또 거름을 끼었고 그냥 기계로 갈아 버렸어요. 갈고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갈나무 한 백 주를 심었어요. 그레 가지고 밭에 흙 안 묻히고 스위치만 틀면 갈나무 하나하나에 물을 주게끔 파이프를 전부 놔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울타리 나무 있죠? 여기서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따리 하나 쳐지지 않는 덩어리 나무 있죠? 그것이 울타리나무라나요? 그거를 한 백 주 넘게 사서 땀 흘려 가면서 전부 심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과실나무도 조금 심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뉴욕에서 말입니다. 길에 나가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남이나 백혈병이나 에이즈병이라나 뭐 그거, 또 요새 유행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뚱뚱해서 걸을 못 걷는 병도 있어요. 허, 참 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섯 여섯을 하나로 뚱뚱 놔도 아마 그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

있는 사람들, 또 애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몸이 뚱뚱해지니까 요런 걸 먹어야 되겠다 이라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병도 그렇지만 모두 우리 자체가 바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코치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내 몸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조금 나쁜 수를 놓는 게 좋죠. 또 그럴 땐 정신에도 좋고 몸뚱이에 병이 안 생기죠. 여러분도 먹는 데에 좀 더 유념하시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속에서 달라는 대로만 조금씩 주면 돼요. 이 증생들이 달라는 대로만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일부러 좋다고 하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달라는 대로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번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훑고 날라 보고 삼십도 해 보고 곡괭이질도 해 보고 그레 봤지만 말입니다.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먹을 때는 호박이 그냥 지천으로 열렸습니까마는 미국에는 한국의 애호박이라는 게 없어요. 오이도 그런 오이가 없고요. 고추도 그런 고추가 없고요. 배나무도 그런 배나무 없고, 그래서 배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갈 언연이 있어서 갈 날 때에 간다면 감은 실컷 먹을 겁니다. 허허허...

로 나의 증생들이 그렇게 많고 한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나를 회전시켜 주고... 그러니까 바로 부처는 당신한테 있으니 주인공 안테나를 꼭 믿고 내면세계를 믿으라고요. 그리고 일체 만법을 들고 별 때에 물려서 없이 '거기서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꼭 계속해서 나가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착착 신기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연하는 아닙니다.

질문자1(남)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큰스님 예, 글도 이 모든 세포, 여기서부터 오기로, 이렇게 해서 눈 시력이 여기로 통해서 다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아침에, 소금물 물에 타서 뒹다가 그 물로 먼저 씻으세요. 꼼뻑꼼뻑해서 들어가게 하고 씻고선 가만히 양쪽 손으로 눌러 주세요.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면서 그렇게 몇 번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나를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 갑자기 아예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인도 두 눈이 다 안 보이지, 애크는 있지 또 남편도 한 눈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두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왔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고쳐 준단 말 안 해요. 왜? 당신만

호남 범음회 회원 모집

호남범음회는 호남재를 중심으로 계승하고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단의 문턱을 넘어 전통불교 의식인 범음, 범패에 관심있는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정기모임은 한달에 한번
- 매년 하계, 동계 수련법회 10일간

회 장 휴암스님
교육원장 지산스님
강 사 운산스님
지현스님
총 무 자인스님

연락처 호남범음회본부 063)858-5895
011-680-7458

호 남 범 음 회

노인복지 함께 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평생을 불가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워 금생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의 사고로 1급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나 10여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하여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젠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뜻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 종정 달마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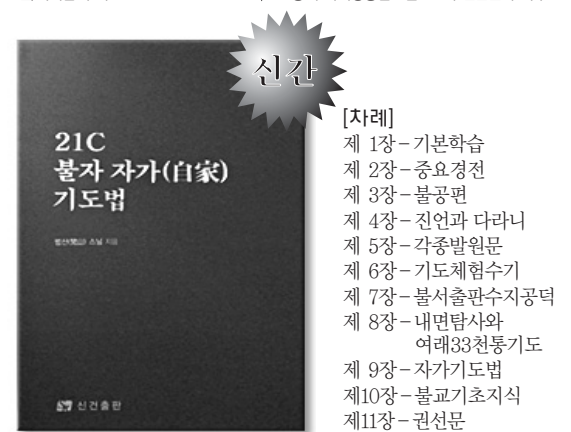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8-1 용주사
031)642-8345 / 010-7493-8977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佛敎 큰스님은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법제예비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역
- 한해동불교대학 대학원교수
- 한양공공대학 객원교수
- 한여래암 주지
-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경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재학파의 비교 연구
- 공상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오묘에 가는 저술길
- 공저 국역삼장법집 - 외 전문분야 다수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사진(여권용) 4매
-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역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총목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